

글로벌 전주,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넘어서다

전국 유일 '세계문화주간' 문화 향유 기회 제공

프랑스, 영국, 미국을 거쳐 올해 4 회째를 맞는 스페인 세계문화주간 행사가 열린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문화지평을 국내는 물론 세계로 확대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전국 유일의 세계문화주간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국내 유일 세계문화주간 전주 개최, 문화교류 확장

전주시는 세계문화주간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지평을 높여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적응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고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해외문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주 프랑스 위크'를 시작으로 2017년 영국의 전시, 공연, 북콘서트를 선보인 '영국문화주간'

을 개최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특히, 지난해 미국주간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전주시를 직접 방문, 김승수 전주시장과 함께 한옥마을과 국립무형유산원 팔복예술공장 등 전주시 도시재생지구 일원을 돌아봤다.

▲전통으로 빛나는 글로벌사업, 세계가 인정하다

전주시는 3대(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 세계무형유산포럼, 세계슬로포럼) 국제포럼과 3대(전주비빔밥축제, 전주대사습놀이, 전주한지문화축제) 문화축제의 경쟁력 강화, 전주한옥마을의 국제관광도시화, 시민이 사랑하고 세계가 찾아오는 독립영화도시 조성, 역사문화도시 4대사업(전라감영 복원 및 재창조, 후백제 역사문화재조명, 전주동화농민혁명 역사문화

벨트 조성, 전주4대문 르네상스 사업) 추진, 시민이 주도하는 세계 속의 인문도시 구축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지난해 국내단일도시 최초로 유럽 문화의 중심지인 프랑스 파리

는 문화도시들과 문화교류도 활발히 전개해왔다.

그 결과 전주시는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1천만 관광객 시대를 열었고, 세계적인 여행지 '토리플래닛'이 아시아 3대 관광명소로 선정했으며, 이

전주 프랑스 위크를 시작으로 영국문화주간 미국주간 등 개최 '큰 호응' ... 올해는 '스페인주간'

에서 전주음식과 전주한지 등 전주의 우수한 문화를 소개하는 '한국관광문화대전 테이스트 코리아(Taste Korea) 전주스페셜'을 운영했다.

이와 함께 시는 모로코 마라케시와 프랑스 베르사유, 일본 가나자와, 중국 리장·쑤저우 등 각국을 대표하

를 CNN이 전 세계에 방영했다.

또한, 세계지방정부연합 멕시코 문화어워드에서 전통문화도시전락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고 영국의 유력 언론매체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한국에서 음식으로는 상대할 곳이 없는 도시'로 소개되

기도 했다.

이와 함께 FIFA U-20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세계무형유산 포럼 개최, 수공예도시 도약, 투브르 박물관과 유네스코, 바티칸이 주목한 전주한지, 미국의 영화평론잡지 '무비메이커'가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에서 가장 멋진 영화제로 꼽는 등 글로벌 문화관광도시의 토대를 마련했다.

전주시는 최근 남생매거진 에스콰이어 중동판 '여행 버킷리스트 : 죽기 전에 해야 할 100가지'에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마식여행지로 선정되었다.

전주시 관계자는 "프랑스, 영국, 미국에 이어 열리는 스페인문화주간은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적 다양성을 즐기게 하고 또한 우리 문화를 스페인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효철 기자

완산구, 6억원 투입 노후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전주시 완산구는 올해 총 6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의 옥상방수와 내·외벽 도색, 지하주차장 LED조명교체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억원보다 규모가 2배 증가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지원대상인 완산구 권역의 109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전주시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의 아파트 준공 후 경과 년수와 세대규모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보조금 지원대상 32개 주택단지를 확정했다.

선정된 단지에는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송효철 기자

예수병원, 6회 연속 수술 예방 항생제 사용 평가 1등급

예수병원(병원장 권창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에서 6회 연속 1등급을 획득했다.

지난 6월 3일에 심평원이 공개한 8차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 839곳에서 19종류의 수술을 받은 만 18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예수병원 종합점수는 96.5점으로 전체 평균 79.5점, 종별 평균 84.2점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위 수술, 자궁적출술, 갑상선수술이 100점, 백내장 수술 99.5점, 유방수술이 99.3점을 받아 적절한 항생제 사용으로 환자중심 치료를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 기자

범죄신고 112 화재신고 119

완산구, 14개 공원 분수대 시설 점검·청소 완료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가운데 시민들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한 공원 분수대가 가동됐다.

전주시 완산구는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무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중화산동 인정길 공원과 삼천동 거마공원 등 구내 14개 공원 분수대에 대한 점검 및 청소를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공원 분수대는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매일 낮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40분 가동 후 20분 휴식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완산구는 시민들이 쾌적하게 분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4회 고압세척기를 이용한 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주 1회 용수 교체, 매일 2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등 안전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완산구는 본격적으로 에어컨이 가동되는 폭염기에 대비해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에 대한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송효철 기자



강연희 소방경, 대전 현충원에 안장 전북도 소방본부는 4일 오후 대전 현충원 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유족과 동료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연희 소방경의 안장식을 거행하고 있다. 강 소방경은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뒤 치료를 받았으나 29일 만에 숨졌다. (사진=전북소방본부 제공)

황인홍 무주군수, 군수직 유지

'허위사실 유포 혐의'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선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며 군수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된다.

공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군수의 2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의 발언은 자신의 전과를 압축적으로 설명하려 한 것이 허위에 대한 인식을 가늠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발언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 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위상실혐의는 너무 과하다"고 원심 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지난 2014년에 열린 제6

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같은 내용을 선거공보에 작성했지만 당시 선관위나 상대 후보에서 별다른 문제 제기를 인했다"며 "그에 따라 제7회 지방선거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선거 공보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당초 황 군수는 농협조합장 재임시 업무상 배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을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보물에 쓰면서 '부득이했다'고 부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3일 열린 무주군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처벌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주장한 혐의도 받았다.

황 군수는 공판 직후 "군민들에게 너무 죄송할 뿐이다. 힘들어 할 군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강석훈 기자

전북도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47대 점거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타워크레인 파업에 나서 전국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전북지역도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동총·한국노총 전북본부는 소형 무인 타워크레인에 대한 규제 강화와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5시부터 전북 지역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47대

를 점거한 채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재 이들은 수십미터의 상공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어 안전사고의 우려를 낳고 있다.

한 건설현장 관계자는 "공사의 절반은 타워크레인 작업이 꼭 필요하다"며 "하루만 작업이 안 되도 현장에 피해가 큰데 파업이 길어지면 규모를 추산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군산 주점 방화범 2심서도 무기징역

의심값 사비 끝에 주점에 불을 질러 7명을 숨지게 하고 28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4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그 결과 피해가 너무 참혹하다"며 "유족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9시 53분경 군산시 장미동 한 주점 안쪽 입구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석훈 기자

전북경찰, 차선도색 불량업체 무더기 적발

시내 도로 차선도색을 부실 시공해 수억원을 가로챈 불량업체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업체 대표 A모(40)씨 등 20명과 무면허 하도급 업체 대표 B모(50)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부실시공을 확인하지 않고 준공 검사를 내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로 전주시 소속 공무원 C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20명은 지난해 전주시와 LH

에서 발주한 21억원 상당의 차선도색 공사 24을 수주, B씨 등에게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공사 원가를 줄이기 위해 유리거푸를 페인트에 적게 섞거나 저가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부실 시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하도급을 주는 대가로 전체 공사 금액의 30~40%에 해당하는 6억2000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공무원 C씨는 시방서에 규정된 자재와 적정 시

공 여부 등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공사가 잘 마무리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 주변 신설도로가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휘도 측정 없이 준공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도로 점검 결과 노면표시 반사 성능, 차선 도색의 두께, 휘도 등이 기준치 미만으로 측정되는 등 부실 공사를 확인하고 이들을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 등 원청업체들은 '도장 공사' 관련 면허만 있으면 공사 입찰이 가능한 점을 노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 기자

부안군 미취업자 대상 창업지원사업 교육생 모집

[부안군 관광산업 연계형 창업지원사업]

- 모집대상 : 창업을 희망하는 미취업자 (나이제한 없음)
- 모집마감 : 2019.06.14(금) 17:00까지
- 신청방법 : 전화 및 이메일 접수
T. 063-280-5238
메일: suyong2@kijeon.ac.kr
(신청서제출 : www.kijeon.ac.kr 접속 후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교육기관 : 2019.06.24~07.05 (총 40시간)

교육혜택
참여자 교육비 전액 무료 (마케팅, 회계, 법률 등 총 40시간)
창업 지원금 최대 1,300만원 지원

사업설명회
장소 : 부안군청 5층 중회의실
2019.6.13(목) 오후 2시

"사업설명회 참석인원 기념품 증정"



부안군 고용노동부 전주기전대학 산학협력단